

## “설날, 사찰에서 차례 지내요”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며 불자로 남다른 설을 맞이하려는 ‘사찰 설날 합동차례’가 신행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설은 사찰의 주요행사로 꼽히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설날 당일인 오는 2월3일 오전 7~9시, 오후1시 세 차례로 나눠 합동차례를 지낸다. 이는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는 불자 외에 집에서 지내고 다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을 위한 배려다. 조계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설날 당일 합동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술 대신 차(茶)를 올리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불교식 차례법은 사찰은 물론 불자 각 가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불교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설날을 맞아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도 불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스님)는 2월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연다. 불교 문화, 전통놀이, 사경 및 탁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은 “설날 당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남은 연휴기간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지는 설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들뜬다.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을 지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설은 불교계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합동차례, 신행문화로 자리매김  
소외이웃 돕는 자비나눔도 ‘풍성’  
한해 안녕 기원 정초기도도 봉행

동안 사찰에서 지친 심신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차례음식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무도 총본사인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스님)도 2월1일부터 4일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날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선무도와 문화예술 상설공연단 사천왕의 공연을 즐기고 선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설을 맞아 사찰 대중들이 그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부처의 자비가 함께 할 것을 기

원하는 불교의식인 ‘통알(通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 사찰행사도 눈여겨 볼만하다.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스님)는 2월7일 오후1시 경내 대웅방에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공동세배를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눈다. 또 윷놀이 등 전통놀이와 자비나눔 경매행사를 진행하며 온정을 나눈다. 또한 국내 저소득계층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설맞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찰들의 자비행도 눈에 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님)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지역 불우 이웃들을 위해 ‘2011년 설맞이 효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100가구에 쌀 20kg, 라면 1박스, 현금 5만원 등 모두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천 대둔사(주지 진오스님)는 2월2일부터 6일까지 경내에서 지역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연다. 또 진오스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마하뱃다센터는 2월2일 구미 폴리텍대학에서 이주노동자

자를 위한 설맞이 축제를 연다. 대둔사 주지 진오스님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날은 갈 곳이 없어 오히려 더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템플스테이와 문화축제를 통해 고국의 향수를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국 본·말사에서 설 연휴기간인 5일부터 신묘년 정초신중기도를 일제히 봉행돼 새해를 맞는 불자들의 무운장구를 발원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4일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한 유물들을 관람했다. 신재호 기자 air01@ibulgyo.com

## ‘왕오천축국전’ 고국 나들이

총무원장 스님,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을 관람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별전 관람에는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총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해초스님이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 서역지방을 기행하고 쓴 기록인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해 수월관음도, 여래좌상 벽화, 청동마차행렬 등의 유물을 1시간가량 관람했다. 특

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오천축국전>의 경우, 세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관람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광식 관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왕오천축국전이 해외 전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왕오천축국전이 공개된 것은 부처님 가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한 특별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왕오천축국전을 친견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2000만 불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전시회가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오는 4월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에는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한 유물 220여 점이 전시되며, <왕오천축국전>은 3월17일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설립’

24개 단체 참여...준비위 워크숍 개최

불교시민사회 공동의제 개발, 불교사회역량 육성 및 강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한 (가칭)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서 불교신행단체, 포교단체 및 NGO 등 24개 단체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4개 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박3일

간 함께 하며 각 단체별 2011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비전과 활동과제를 논의했다. 또 고병수 신부로부터 ‘지역사회와 종교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4대강 생명살림연대활동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 이번에 설립되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불교시민사회 활동 표준화와 역량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단체별 성장과 연대의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 원폭 피해자 2세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불교신문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공동으로 원폭 피해자 2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땅 1평 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피해가 65년이 지난 지금도 되물림 되고 있지만 원폭 피해자 2세의 경우,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원이면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3.3㎡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2세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불교신문사, 합천평화회집, 아름다운동행
- 주 관: 합천평화회집
- 기 간: 2010년 9월22일부터 1년간
- 목 표 액: 2억원
- 후원방법: 5만원 - 원폭피해 2세를 위한 땅 3.3㎡(1평) 후원(십시일반 동참도 가능)
- 후원계좌: 농협 301-0063-8703-21(예금주: 아름다운동행)
- 문 의: 합천평화회집 (055)934-0301,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불교신문사 (02)730-4488

진흥원·불교신문·BBS 공동기획 ‘신년대법회’ 법문 8면

조계종 통일가사는 승가의 위의를 높이고,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종단 차원의 불사입니다.

조계종 종단 통일가사는 반드시 가사원에서 제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승복점에서 제작하는 가사는 불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는 법계에 맞게 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종도는 법계에 맞는 가사를 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 랑    | 비구법계 | 비구니법계 | 가사조수 | 전형방법  |
|--------|------|-------|------|-------|
| 40년 이상 | 대종사  | 명 사   | 25조  | 특별전형  |
| 30년 이상 | 종 사  | 명 덕   | 21조  | 특별전형  |
| 25년 이상 | 중 덕  | 현 덕   | 19조  | 고시 1급 |
| 20년 이상 | 대 덕  | 해 덕   | 15조  | 고시 2급 |
| 10년 이상 | 중 덕  | 정 덕   | 9조   | 고시 3급 |
| 10년 미만 | 견 덕  | 계 덕   | 7조   | 고시 4급 |
| 사미·사미니 | 없 음  | 없 음   | 만의   | 고시 5급 |

가사 제작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가사원  
(02-3412-7867, 7869 / FAX 3412-7868)

가사는  
法衣입습니다